

# JAVA개발자 직군 자소서 참고자료

코리아IT아카데미 취업지원실

## [성장과정]

어려서부터 무언가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작은 조립식 로봇을 사주시곤 했는데 그걸 맞추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갈 정도로 집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조립장난감에서 조금 멀어질 때쯤 어느새인가 제 손에는 드라이버와 납땀이 들려있었습니다. 집에서 망가진 라디오, 스피커, 장난감 등을 직접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고장 원인을 찾는 게 하나의 취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리 잡은 집중력과 분석력은 소스 코드의 오류를 찾거나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오류를 찾아내고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줄여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자신이 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거나 자신이 나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하는 성격입니다. 일을 진행하는 중간에 막힐 때는 다른 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점이 저에게 강점으로 자리 잡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저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끝마치려고 합니다.

## [성장과정2]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배우고 느낀 것을 친구들과 나누는 게 좋아서 교육자의 꿈을 키웠고 대학 졸업 후에는 교육 회사에 입사하여 교육사업 운영팀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진행하던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SW 기술을 이용하여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도움받은 경험'이 그 어떤 교육보다 큰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이 현재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익혀 더 넓고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학원을 통해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난수를 이용한 가위바위보 게임, socket을 통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연결, 더 나아가 thread를 활용한 멀티채팅 등 익숙하게 활용하고 있는 기능들을 제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후 게시판에 답글, 조회수 증가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MVC 패턴과 서블릿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요청에 맞는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 DB데이터 연결 등을 배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개인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며 복습해가고 있습니다.

## [성장과정3]

어린 시절부터 새로운 것을 접하면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재미를 느끼곤 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 html 을 우연히 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선 즐겨 찾던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노래 제목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평소엔 html 에서 'music'을 검색하면 태그 안에 음악 명이 있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아버지를 위해 제가 직접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 무지했던 저는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html 을 처음으로 접해봤고,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기게 된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생소한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던 저는 그 이후 용기를 내어 코딩 국비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무언가를 만들고, 만든 결과물에 대해 피드백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학교에선 PPT 발표에 필요한 기획을 하거나 만드는 일을 자발적으로 해왔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 완벽히 해내는 것에 큰 흥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이후로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한 후 블로그에 업로드해서 저만의 지식서를 만들고 공유하는 것을 즐깁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운 지금은 music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embed 태그를 사용한다는 것을 아버지께 알려드릴 수 있는 성장한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 [성격의 장, 단점]

### AtoZ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하나의 일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게 일을 완료했을 때,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저는 단체활동에서 항상 임원을 맡아왔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학생회, 교내 동아리 회장, 교외 동아리 임원진을 맡았습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을 제가 더 주도적으로 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교내 동아리에서는 1학기 연주회를 만들었고, 교외 봉사 동아리에서는 월 단위 행사를 기획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 성격의 단점은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주변을 둘러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제가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대학 봉사 동아리 시절에는 기획한 행사는 1년간의 장기 계획을 짜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임원들과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원진 사이에서 불만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풀기는 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일을 진행할 때 있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OOOOOO에서 저는 책임감 있는 일 처리를 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일만 처리하기보다는 일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에는 그 일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발전하는 사원이 될 것입니다.

## [성격의 장, 단점2]

협동심과 리더십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CGV의 아르바이트 체계는 교육생, 일반, 선임 3가지가 있고, 수십 명의 일반 아르바이트생 중 몇 명만 뽑히는 선임이라는 자리에 특유의 리더십으로 선임에 뽑혀 3여 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드나드는 곳이라서 반드시 여러 직원과 함께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직원을 더 배치하고 도와주며 동시에 다음 시간대에 필요한 물건들을 확인하고 같이 챙기는 등 리더십과 협동심을 최대로 발휘하며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단순히 지시만 하는 게 아닌 지시한 일을 팀원들과 같이하며 이끌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협동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 가장 큰 장점은 협동심과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하는 일보다는 여럿이 같이하는 일이 많으므로 협동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업에서 빛을 발휘할 장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면에 약간 꼼꼼하지 못한 것이 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CGV에서 일하며 정직원이 저에게 지시한 여러 가지 일들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퇴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마무리 짓지 못했던 다양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업무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단점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려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모해서 기록을 남겨두니 처리해야 할 업무를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고 메모를 하지 않을 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퇴사하고 난 뒤에도 메모하는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인데 중요한 일정이나 해야 할 공부 목록을 메모로 남겨두니 중요한 일정을 놓쳐 아쉬운 일도 없고 공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어 굉장히 효율적인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 [성격의 장, 단점3]

### "협업에서의 책임감"

**책임감이 강한 것이 장점입니다.** 협업에서 책임감은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수행했을 때, 팀의 시너지가 한층 강화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발휘하여 팀의 결속력을 강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발 동아리 000에서 활동했을 때, 팀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시 첫 동아리 활동이었던 프로젝트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원래 역할인 Back-End 개발 외에도 Android 개발을 맡았습니다. 경험은 없었지만, 이 또한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했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팀원들도 이런 모습을 보며 힘든 상황에서도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했고 그 결과 동아리 내에서 우수 팀으로 뽑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팀원들과 더욱 신뢰를 쌓았고 동아리 활동 기간 이후에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팀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줌인터넷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끝이 없는 도전 정신"

**끝도 없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눈앞에 놓인 일을 하느라 다른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당시, 게시판 크롤링 로직을 작성하던 중 예외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1교시에 수업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그 예외를 해결하기 위해 밤새 고군분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1교시 내내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당장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과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점검하고 시간 계획을 세우면서 이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 2순위의 일도 그르치지 않는 줌인터넷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잡코리아, [줌인터넷(주) 2017년 상반기 신입 웹프로그래머 합격자소서]

[지원동기]

**끊임없이 노력하는 OO(기업명)**

OO는 국내 구매 SCM 분야의 1등이라는 업적을 토대로 싱가포르로 첫 직수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동남아시아·미주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진행하고 있는 OO의 모습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더 높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도전과 성장'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계속 성장해 나가는 OO와 함께한다면 더 큰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엔지니어 직무는 특히 제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무라 생각되어 지원하였습니다. 몇 차례 고객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OO가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술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미래를 이끄는 기업이 되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지원동기2]

평소 IT기술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 대학시절 IT분야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시작한 IT분야 였지만 공부를 거듭할수록 관심이 커져갔고, 대학 3학년이던 시기에 진로와 미래를 바꿔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만큼 평생의 업으로 삼고자 꾸준히 배경지식과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키웠습니다. IT분야의 공부를 하며 느꼈던 부분은 IT기술에 있어서 고객(사용자)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보안 전문가가 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분야의 실력을 키우고자 국비지원을 통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보안 및 네트워크 교육과정을 이수중이며, 가장 널리 쓰이는 오픈소스 리눅스를 공부하였습니다.

드림시큐리티는 PKI기반의 보안. 인증솔루션 사업을 주도하는 기술력 있는 보안 솔루션 기업입니다. IT 환경, 모바일, IoT, DB와 같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성장하는 트렌디한 기업이라는 것에 매료되어 드림시큐리티 점검/유지보수 분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동기3]

"지식과 열정의 시너지를 발휘하겠습니다"

저는 산업경영공학을 전공하였지만, 학기를 마치고서야 IT에 대한 적성을 찾은 늦깎이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런 제게 LG CNS의 스마트팩토리/스마트물류 직무는 학과에서 배웠던 지식과 IT에 대한 저의 열정이 발휘될 수 있는 천금과도 같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경영공학과를 전공하여 생산 통제, 경영 과학 등의 수업을 통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를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으며, 제조업 인턴ships을 통해 '현 공정의 분석 및 제안'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LG CNS는 채용 과정에서 SW Boot Camp와 인턴ships을 통해 지원자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제게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직무를 미리 경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 물류에 대한 지식과 IT에 대한 열정의 시너지를 증명해 보임으로써 LG CNS에 당당히 입사하고 싶습니다.

출처: 잡코리아, [LG CNS 2019년 상반기 시스템프로그래머 합격자소서]

### [입사 후 포부]

#### 발로 뛰는 IT전문가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해 발로 뛰는 IT 전문가가 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계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업계 트렌드에 민감한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한 달 한번씩 IT세미나에 참가해 신기술 중 OO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편한 기술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적인 IT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론만 배우는 것에서 그치고 않고, 항상 공부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늘 경청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통해 선배, 동료들과 협업해 고객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OO의 인재가 되겠습니다.

### [입사 후 포부2]

제가 회사에서 목표하는 모습은 소통의 환경을 이끌어내는 인재입니다. 개인의 업무 역량도 중요하지만, 부서내, 부서 간, 그리고 거래처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력관계가 되어야 양질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내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사 후 계획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입사 후 1년차까지 성실히 배워갈 것이고,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대해 더욱 공부하여 업무의 이해도를 높일 것이며 올해 상반기 정보처리기사와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취득을 하여 역량을 끌어 올릴 것입니다. 그 후 3년차까지 업무에 대한 대부분 사항을 숙지하고 숙련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원리와 그에 대한 이해까지 습득하겠습니다. 그 후 7년차까지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더하기 위하여 WEB, WAS, DB에 관하여 꾸준히 공부함과 동시에 타 부서원들과 교류를 통하여 부서 간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0년차 까지는 업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대인관계의 좋은 순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3]

OOOO에 걸맞는 개발자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빠른 업무파악, 기술력의 향상, 원활한 대인관계능력이 밑바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사하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업무에 익숙해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메모하고 복습하며 실수하거나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르는 것은 바로바로 물어보고 찾아보면서 빠르게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프로그래밍 기법들과 새로운 언어, AI/기계 학습을 통한 진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기존에 배웠던 Python과 JAVA웹개발 외에도 다양한 AI 모델과 관련 기술을 익혀 더욱 발전하고 능력 있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이 좋다'라는 저의 장점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여러 선배, 상사 분들의 조언을 항상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하더라도, 자기 아집과 좁은 시야에 갇혀서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 선배님과 상사 분들에게 질문하고, 고민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원활한 업무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30년 40년 후에도 이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취업 후에도 꾸준히 변화하는 개발 환경에 뒤쳐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부하며 발전하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